

다음 쪽으로 넘길 때 엔터 연타하세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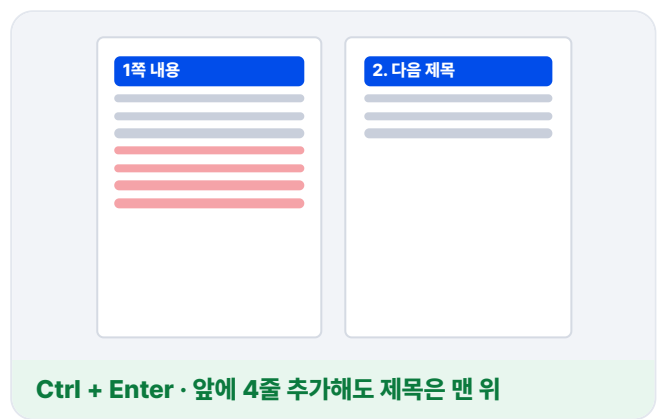
→ 제목이 절대 안 밀리는 쪽 나누기

이럴 때

보고서 2쪽을 새 제목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엔터를 여러 번 눌러 내려 보낼 때.

왜 그럴까

엔터로 만든 빈 줄은 글의 일부라서, 앞쪽에 글이 늘면 빈 줄과 함께 제목도 밀려 내려가요. **Ctrl** + **Enter** 는 '여기서 쪽을 넘긴다'는 표시라 앞 글이 늘어도 다음 쪽 맨 위가 그대로예요.



따라 하기

- 1 쪽 마지막 글 끝에 커서를 뒹요.
- 2 **Ctrl** + **Enter** 를 눌러요. 커서가 바로 다음 쪽 맨 위로 넘어가요.
- 3 다음 쪽 제목을 쓰면 돼요. 앞쪽에 글을 더 써도 제목은 맨 위에 그대로 있어요.

언제 쓰면 좋을까

보고서의 장이 바뀔 때, 표지 다음 쪽, 부록처럼 '반드시 새 쪽에서 시작해야 하는' 곳마다 엔터 대신 **Ctrl** + **Enter** 를 쓰세요.